

<원 지사-반대위 오늘 만남>

‘제2공항 갈등’ 변곡점 될까

25일 도지사 집무실서 강원보 위원장과 면담
1:1 토론 등 공개토론회 개최 일정 확정 예정
제주도의회, 29일 도민공론화 방안 모색 ‘관심’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강원보 제2공항성상업반대대책위원장이 25일 오후 4시30분 도지사 집무실에서 만난다.

제2공항 의혹해소와 도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개토론회 개최 일정 등을 최종 확정하기 위한 만남으로, 제2공항 건설을 둘러싼 갈등 해결의 물꼬를 틀 변곡점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이와함께 제주도의회도 제2공항 갈등 해결을 위한 도민 의견 수렴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추진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제주도는 이날 진행되는 면담이 공개토론회 개최 필요성에 대한 공감 아래 진행된다고 24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날 면담은 2대2 찬반 패널이 참여하는 방송토론회(2회) 개최 원칙을 갖고 정확한 공개토론회 횟수와 방식을 결정하게 된다. 특히 원 지사와 반대대책위원간의 1대1 토론 성사 여부도 관심사다.

앞서 반대대책위는 지난 5일 공문을 통해 원 지사에게 공개토론회 개최와 프랑스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 초청 ADPi 보고서 검증 등 제안을 바 있다.

반대대책위는 당시 공문에서 “제주도지사가 정작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입장은 전혀 모르고 국토부의 입장만 두둔해서 중대한 하자가 없다고 믿고 있다”며 “국토부의 주장과 지역대책위 주민들의 주장을 공개적인 토론회 방식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또 “제2공항 문제의 가장 핵심으로 떠오른 ADPi 보고서 문제에 대해 정밀하게 되짚어야 한다”며 “제주도 차원에서 이 보고서를 만든 ADPi사를 직접 초청해 그동안 논란이 된 ADPi보고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더 나아가 논란이 된 부분들을 검토하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에 지난 15일 제주도가 공개토

론회 개최를 긍정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며, 관련해 조만간 원 지사와 반대대책위측과의 만남 가능성을 열었다.

다만 반대대책위가 제안한 ADPi 초청 ADPi 보고서 검증 제안은 도가 난색을 표하고 있어 이날 면담에서 다뤄질지는 미지수다.

도는 이날 면담 종료 후 결과와 그에 따른 후속조치사항을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가 주최하는 ‘제2공항 관련 도민 의견 수렴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는 오는 29일 오후 3시부터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박 위원장은 “제2공항 타당성 재조사 용역과 검토위원회가 종료됐지만, 여러 가지 논란과 의혹은 해소되지 못하고 갈등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해 도민사회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며 “최근의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보듯이 대다수의 도민들은 제2공항의 찬성·반대 여부에 관계없이 도민갈등 해결을 위해서는 도민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시·도지사와 인사 나누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부산 누리마루 APEC 하우스에서 시·도지사 간담회 전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등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 “규제자유특구 2차 지정 서둘러야”

24일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연내 추가 지정 당부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규제자유특구 선결과 과 관련 이번 선정되지 못한 지자체들의 조속한 추가 지정을 관계 부처에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부산 누리마루 APEC 하우스에서 열린 시·도지사와의 간담회에서 “내년 예산 반영 문제도 있고, 이번에 제외된 지역의 상실감이 있다”며 이같이 주문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다섯 번째로 열린 이번 시·도지사 간담회에서는 지역의 혁신적·전략적 성장을 위해 도

입된 규제자유특구에 대한 정부의 지원 계획이 발표됐다.

문 대통령은 “지역 발전이 곧 국가 발전이다. 정부는 지방정부가 더 많은 자율권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행정, 또 재정 권한을 나누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발표하는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의 혁신 의지와 결합되어야만 성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규제혁신과 혁신성장을 위해 지방 정부와 중앙정부가 함께 의지를 다지

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최초로 7개 지자체에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에 규제자유특구로 선정되지 못한 지자체도 계속될 2차 선정 사업에서 조기에 추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며 “(특구는) 지역 내 내재된 역량을 가지고 주도하지만, 지역 인프라를 총동원하고 다른 지역과 연계하는 행동능력은 지역이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 중앙 부처에서 컨설팅을 잘 해줘서 조기에 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부미현기자 bu8385@ihalla.com

‘미래감귤 50년 과제’ 발굴 준비 막바지

어제 농어업인회관서 자문회의
발굴과제 단기·중장기 대책 논의

미래감귤산업 50년 과제 발굴 준비가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실효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며 면밀한 정책 수립이 요구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4일 오후 농어업인회관 2층 회의실에서 이우철 농축산식품국장의 주재로 감귤산업정책자문위원 19명과 함께 제4차 감귤산업정책자문위원 회의를 개최했다.

제주도는 이날 미래감귤산업 50년 준비를 위한 T/F팀 운영상황을 보

고하고 미래감귤산업 50년 준비를 위한 단기·중장기 대책안에 대해 자문 받았다.

우선 과제발굴안을 보면 감귤생산 분야에서 ▷안정생산 체계 유지 ▷농작업 자동화 확대 ▷무병원종 생산 확충 ▷야열대과수 육성 ▷ICT 기반 생산 등이 제시됐다.

감귤유통분야는 ▷소비 트렌드 반영 ▷산지 조직화 ▷제주형 신유통출하정보시스템 개발 ▷신소득 개발 등의 과제가 검토됐다.

이와함께 감귤정책분야에서는 ▷자생력 확보 ▷정확한 통계 ▷제도

적 뒷받침 ▷감귤케어팜 계획이 논의됐다.

이소진기자 sj@ihalla.com

제주내비게이션 AS센터
블랙박스 점검센터
(본조사거리에서 바닷가 방향 세계마트 내)
블랙박스 4채널 장착가능
네비게이션 업데이트 가능
☎ 711-6544

2019년 9월부터 신규 자동차번호판 이렇게 바뀝니다

기존번호판(페인트식)

52가 3108

➔

신규 페인트식 번호판

152가 3108

신규 자동차번호판 발급대상자에 한합니다

-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신규등록자동차, 변경등록자동차 등에 한합니다.
- ◎ 대상자동차는 비사업용 승용자동차(01~69 → 100~699)
- ◎ 대여사업용 자동차(01~69 → 100~699)에 한합니다.

주차관리 운영자는 차량번호인식시스템 업그레이드 꼭! 필요합니다.

- ◎ 아파트, 상가, 전통시장 등 차량 출입시스템
- ◎ 공공·민간주차장, 문화시설, 대형건물 등 차량 출입시스템
- ◎ 주요 관공서, 공항 등 차량 출입시스템
- ◎ 주정차 단속용 차량번호인식 카메라 등

※ 사전 테스트를 위해 2019. 7월까지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정책과 710-2463, 제주시 차량관리과(자동차등록사무소) 728-8401, 서귀포시 교통행정과(자동차등록사무소) 760-3125